

이강석·이상화 500m 금

동계체전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간판 이강석(23·의정부시청)과 이상화(19·한국체대)가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500m에서 나란히 남녀부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강석은 11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 일반부 500m에서 35초49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땀다. 이기호(24·서울시청)도 35초89로 대회신

기록을 세웠으나 이강석에 간발의 차이로 뒤지면서 2위에 그쳤다.

여자 대학부 500m에서는 이상화가 39초16으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대학부 500m에서는 모태범(19·한국체대)이 35초87로 금메달을 땀고, 남자 대학부 500m에서는 송진수(20·한국체대)가, 남자 일반부 500m에서는 최근원(26·의정부시청)이, 여자일반부 500m에서는 오민지(23·동두천시청)가 각각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동계체전 4관왕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남자고등부 크로스컨트리 부문에서 4관왕에 오른 김학진(18·강릉농공고)의 역주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연아를 취재하라”

캐나다 언론들 인터뷰 요청 밀물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대회 여자 싱글 챔피언에 오른 김연아(19·고려대 입학예정)를 바라보는 캐나다 언론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막전을 1년여 앞두고 캐나다 토론토를 훈련 본거지로 삼고 있는 김연아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겠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 관계자는 11일 “4대륙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캐나다의 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CTV와 캐나다 최대 방송사인 CBC에서 김연아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라며 “그동안 캐나다 방송국들이 김연아의 경기 소식을 단신으로 내보낸 적은 있지만 단독 인터뷰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서

피겨스케이팅의 인기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프레올림픽으로 치러진 이번 4대륙 대회를 통해 내년 동계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떠오른 김연아를 새롭게 조명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는 “CBC는 지난해 12월 고양에서 치러진 그랑프리 파이널 때 취재 기사를 보내기도 했었다”라며 “4대륙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자 토론토 크리켓빙상장에서 김연아의 훈련 모습을 담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인터뷰 신청이 많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돌아온 김연아는 애초 11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하루 휴식을 하고 12일부터 하루 두 차례 스케이팅 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1,500m 내 기록 깨는 게 목표”

‘마린보이’ 박태환 미 전훈 마치고 귀국

“1,500m에서 개인 기록을 깨는 것이 목표다”

한국 수영의 대들보 박태환(20·단국대)이 6주간 진행된 미국 전지훈련을 마치고 11일 오전 귀국했다. 박태환은 “새벽에 많은 분이 나와주셔서 반갑고 열심히 준비했으니 한국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귀국 인사를 알렸다.



지난달 3일 출국했던 박태환은 그동안 미국 남주주대(USC)에서 훈련하며 몸을 만들어 왔다.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자유행 400m 타이틀 방어, 200m와 1,500m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연초부터 탐금질에 들어갔던 것이다.

박태환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장 좋은 성과를 바라기는 그렇지만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전지훈련 성과를 정리했다.

출국 당시 “1,500m에서 개인 기록을 깨는 것이 우선이다. 그동안 1,500m에서 많이 부진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특히 텀 동작에서 0.1초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던 박태환은 “소프트코스에서 장거리 훈련을 하면서 텀 동작 많이 가다듬었다”라고 밝혔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 우사마 멜틀리(튀니지)와 라스 켄슨(미국) 등 1,500m가 주종목인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했다는 박태환은 “멜틀리와는 언어 장벽이 있다 보니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다. 금메달리스트지만 겸손하고 배울 점이 많은 선수 같았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서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얘기했다”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여유만만’ 신지에



12일(한국시간)부터 열리는 2009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 SBS오픈대회에 출전하는 신지에가 10일 미국 하와이 오아후섬 터틀베이 골프장에서 연습하던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조協 새 전무 김대원씨

대한체조협회가 집행부를 대폭 교체하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협회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김대원 전 기술위원장을 4년 임기의 새 전무이사로 선임했다. 신임 김 전무는 남승구 한체대 교수와 함께 국제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심판으로 활약해왔다.

전무를 맡았던 김동민 한체대 교수와 오랫동안 협회 행정을 챙겨온 김팔모 사무국장은 새로 부회장에 선임됐다. 김 국장의 뒤를 이어 소정호 사무차장이 사무국장으로서 승진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장 후보 16일 ‘정책토론회’

박용성·박상하씨 등 7명 출마

제37대 대한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열기를 더하는 가운데 체육회장 후보들의 정견을 듣는 정책토론회가 16일 열린다.

한국체육단체총연합·한국체육기자연맹 공동 주최로 이날 오전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후보별 정견발표에 이어 박주환 21세기 스포츠포럼 사무총장, 이응기 올림픽성화회장, 정현숙 여성스포츠회

회장 등 패널 5명이 체육회장 후보로서 정책과 비전과 관련해 같은 질문을 후보들에게 던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는 박용성 전국체육대회위원회(IOC) 위원, 박상하 대한정규협회 회장, 장경우 한국권경개러바닝연맹 총재, 유준상 대한인라인롤러연맹 회장, 이상철 전 한국체대 총장, 장주호 KOC(대한올림픽위원회) 고문, 박종오 UMU 대표 등 7명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석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야구協 파행인사... 직원들 해명 요구

대한야구협회가 최근 파행인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무처 직원들이 강승규 회장에게 인사 배경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협회 전 직원 8명은 11일 언론사에 자신들의 사인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번 인사에 대해 강승규 회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사정을 촉구했다. 지난 6일 단행한 인사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자 강 회장은 전날 ‘협회 임원인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김지태 기획이사과 이응길 국제이사 등 2명을 면직했으나 논란은 더욱 커진 형국이다. 협회 직원들은 여러 측면에서 강 회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먼저 총무·홍보이사이자 사무처장으로

겸임 발령한 윤정현씨가 협회 직원 정년 규정인 58세를 넘긴 만 61세인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 회장이 윤정현씨를 사무처장으로 밀어붙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체육회가 협회 사무처장 급에 보조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3천만원의 받을 수는 없다. 협회 직원들은 이 금액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를 강 회장에게 물었다.

강회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윤정현 사무처장 발령자를 비상근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원들은 어느 체육회 가맹단체든 행정 업무를 지휘하는 사무처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근 대행이라는 사실은 인사조치에 반드시 명기될 사안이지 보도자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금강보청기 광산구 월계동 LCE타워1층 수입명품디지털 보청기전문 A/S 65세이상 청각 장애인 명품저렴 보청기 직할검사 무료 ☎(062)971-3553	뉴연지곤지 서구 화정동 광주은행 염주지점 맞은편 피부질환·노화방지·비만·천연성분의 림프다이 시용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희원관리 ☎(062)373-5284	풍천민물장어 북구 본촌동 본촌초등학교앞 민물장어 25,000원 정어 5,000원 초어탕 5,000원 대표 김경숙 ☎(062)576-6699	현헤어스케치 남구 양림동 사직도서관과 김남파리사이 펌,염색,컷트,최신유행 헤어스타일전문 컷트시 1만원 문화상품권 증정 ☎(062)674-3162	이성출치과 동구 금남로3가 하나로통신연 4층 임플란트·심미보철·급속교정·투명교정·치아미백 치아성형·보존치주·레이저치료를전문 ☎(062)232-5221-2	
주빈건축 담양군 백동동 동산병원옆 주택수리·보수공사·전문·화장실·수도배수·터미널·공 보일러 설치 및 수리전문 ☎(061)382-8001	LAON(라온치과) 남구 주월동 기업은행 봉선지점2층 심미보철, 예방치료, 임플란트, 교정치료 치아미백, 치주치료 ☎(062)351-2828	(주)세 현 서구 내방동 솔피타운입구 유리,하이샷시,일루미늄,참호,금속, 각종유리공사 전문업체 ☎(062)374-6488	한울요양보호사교육원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옆 한울교회1층 요양보호사 교육생 수시모집 대표 전영숙 ☎(062)382-8373	허브다이어트체험관 남구 방림동 삼일@맞은편 세미금융고층 뱃살소옥 다이어트 회원수시모집 무료체험 선착순모집 ☎(062)655-2228	유달식당 북구 임동 구동사무소앞 백반,갈치조림,병치조림,삼겹살 대표 강경업 ☎(062)511-5977	디메르칸피 동구 충장로2가 광주체육국옆 샐러드,피자,스파게티,스테이크 단체 예약손님환영 ☎(062)225-8886-7
현대슈퍼 남구 백운동 백운우체국 뒷골목 각종생활용품 판매 대표 민일순 ☎(062)671-9322	한우몽 동구 학동 남광주4거리 농협옆 축산농가의품 산지 가격의 실현 대표 노하연 ☎(062)233-9295	지인상담소 서구 화정동 서초등학교 후문옆교 옆 시주,관상,택일,영가 결혼전문 대표 구경란 ☎(062)430-5872	산수우체국 동구 산수2동 산수5거리에서 충장중쪽 국장 이강연 ☎(062)523-1338	소라음악학원 북구 두암동 농협가리 덕신맨션 건너편 유아,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입시반,취미반 바이올린,비올라,원생수시모집 ☎(062)523-4673	원천환경 북구 유동 북성중건너 심의의원4층 축산,폐수처리시설,설계,시공및 관리 대표 조상운 ☎(062)511-3171	브레인학원 남구 봉선동 봉선초등학교 정문앞 최첨단 멀티시스템활용 초,중,고,종합반 영수단과반 수시모집 ☎(010)8856-3330
옛날짜장 북구 양산동 양산초4거리 고급 중화요리 전문점(면류,한식류,셋트메뉴) ☎(062)571-8334	낙지한마당 서구 쌍촌동 호반리젠시빌 모델하우스뒤편 낙지전문점 대표 이영현 ☎(062)375-3700	삼성출판사외이즈컴프학습관 서구 화정동 서부소방서옆 남도영가 맞은편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논술,일장님 1:1 자기주도 학습관리 초·중·고·대·원생수시모집 ☎(062)383-1131	광주테크-인 광산구 장덕동 중소기업지원센터 B동223호 전기전자계측기 판매수리,전기전자통신부품 판매,바코드프린터,스캐너,컴퓨터 ☎(062)955-9886	일해서대나라 북구 두암동 시외버스 정류장뒤 먹지골목 메생이탕,갈치조림,정어탕,병치조림,비대장어구이 서대무침 전문 단체예약손님환영 ☎(062)251-1100	(주)광주탐외국어사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4거리 외국어교재,영어동화및교구수업일서,영어사전,과학, TOEIC,TOEFL,VOCABULARY,초등외국어교과서 ☎(062)226-1054	멧돼지짬뽕이 남구 원산동 포충사에서 대현항 100m지점 멧돼지 짬뽕이 전문 단체예약손님환영 대표 김희순 ☎(062)374-3495